

개막시리즈 2선발은 이의리? 하늘에 물어봐

KIA 윌리엄스 감독 “볼 끝 좋다” 사실상 두번째 선발 낙점
어제 예정 됐던 시범경기 미세먼지에 취소...최종 선발 점검 무산
오늘 멧넌 선발...주말엔 비 예보에 4일 투입도 ‘날씨가 변수’



‘아기호랑이’ 이의리의 개막 시리즈 등판? 하늘에게 물어봐!

KBO리그에서 두 번째 시즌을 앞둔 윌리엄스 감독은 2021시즌 밑그림을 세밀하게 그리고 있다. 투수들의 불펜 피칭 개수와 연습 날짜까지 일일이 계산하면서 시즌을 준비해 왔다.

개막이 다가오면서 윌리엄스 감독의 ‘계산법’에 따라 마운드 운용 계획도 엿볼 수 있다.

‘에이스’ 애런 브룩스가 28일 키움과의 시범경기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진행하면서 4월 3일 두산과의 개막전에 맞춰 준비를 끝냈다.

관심을 끈 두 번째 선발 등판 자리에는 이의리의 이름이 언급된다.

이의리는 지난 25일 롯데를 상대로 시범경기 첫 등판을 소화했다. 그리고 30일 시범경기 최종전 등판이 예고됐었지만, 윌리엄스 감독은 하루 앞당겨 29일 선발로 이의리를 선택했다.

윌리엄스 감독의 계산을 짚어보면 브룩스에 이어 4월 4일 두산과의 개막 시리즈에 이의리를 투

입하겠다는 것이다.

29일 경기에 앞서 진행된 취재진과의 인터뷰 자리에서도 윌리엄스 감독은 “미세먼지 상황을 봐야 하지만 오늘 경기에 따라 (이의리의 등판 날짜가) 결정될 것이다. 산수를 해보면 알게 된다”며 “오늘 던지게 되면 두 번째 선발로 자리가 생길 것 같다. 그럴 수도 있다”고 웃었다.

사실상 이의리의 개막 2차전 등판을 예고한 셈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이의리에 대해 “처음 보이는 부분은 볼 끝의 힘이 좋다. 직구가 스트라이크 존을 지나가는 순간 볼 끝이 좋다”며 “직구 자체 구속보다 타자 입장에서 더 빠르게 보인다”는 점을 높게 본다”고 말했다.

또 “직구가 잘 잡히면 캠프 때 보여준 좋은 체인 지업을 보여줄 수 있다. 최근에는 슬라이더, 커브를 스트라이크존으로 던질 수 있다는 점도 좋다”며 “투수는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것이다. 좋은 디펜션을 가지고 있고 볼 끝이 좋은 선수라고 하면 확실하게 좋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에이스 브룩스에 이어 선발 생존자 유일의 좌완

인 이의리가 나란히 개막 2연전을 책임지는 장면이 윌리엄스 감독의 머릿속에는 그려졌지만, 그 구상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월 4일 등판에 맞춰 준비했던 이의리의 29일 시범경기 등판이 미세먼지로 취소되면서 계산이 복잡해졌다.

예정대로 마운드에 오르지 못한 이의리는 이날 정명원 코치가 지켜보는 가운데 외야에서 공을 던지면서 땀을 뺐다. 이의리가 하루 밀어 시범경기에 나서도 4일 등판은 가능하다.

단 이의리가 30일 경기에 출전할 경우 윌리엄스 감독의 이닝 제한 방침에 따라 원래 구상보다는 적은 이닝을 소화하면서 감각 유지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일단 이날 선발로는 멧넌이 나선다.

이때도 물론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반도가 미세먼지에서 벗어나야 이의리가 마운드에서 감을 조율할 수 있다.

이의리 개막 시리즈 출격 다른 경우의 수는 실전을 건너뛰고 바로 본 무대에 투입하는 것이다.

이 구상에도 날씨가 변수다. 윌리엄스 감독은 주말에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봐야 한다.

윌리엄스 감독은 “계획은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며 “개막날인 토요일에 70%의 비가 예보되어 있어서 일단 상황을 봐야 한다. 확실한 것은 일요일에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은 맞춰져 있다”고 이의리의 개막시리즈 투입 구상을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의리



2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예정됐던 KIA와 KT의 시범경기가 미세먼지로 취소됐다. 경기 취소 후 외야에서 마스크를 쓴 채 캐치볼을 하는 선수들.

윌리엄스 감독 ‘내젠 너무 골치 아픈 날씨’

“출근길 하늘에 달?” 먼지 해프닝
황사에 KT와 시범경기 취소
개막 전 마운드 테스트 차질

‘날씨’가 또 윌리엄스 감독을 막았다.

KIA 타이거즈가 2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예정됐던 KT 위즈와의 시범 경기를 치르지 못했다.

이날 광주에는 해가 뜬 포근한 봄날씨가 펼쳐졌지만, 전곡을 뒤덮은 미세먼지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결국, 경기 개시 1시간을 앞두고 미세먼지로 인한 경기 취소가 결정됐다.

윌리엄스 감독에게는 낯선 풍경이었다. 애리조나에서 모래 폭풍 등을 만나본 적은 있지만 짧은 시간 지나가는 기상 현상.

황사 경보를 처음 접한 윌리엄스 감독은 “이렇게 심한 날씨 본적이 없느냐”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어 “출근길에 해프닝이 있었다”며 “캠핑 중이라 오전에 일찍 출근을 한다. 출근길에 하늘을 보고 ‘와 대박이다. 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경기장에 도착해서야 해라는 것을 알았다”고 웃었다.

웃으면서 ‘미세먼지 해프닝’에 대해 이야기는

했지만 윌리엄스 감독의 머리는 복잡하다.

앞서 비로 시범경기 두 경기를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다시 실전을 소화하지 못하게 되면서, 차근차근 시즌에 맞춰 로테이션을 준비했던 윌리엄스 감독은 마운드 계산을 다시 하게 됐다.

하지만 실전을 치르지 못한 아쉬움 속에서도 윌리엄스 감독은 선수들의 ‘건강’을 우선 이야기했다.

그는 “비가 오면 그라운드 컨디션 때문에 경기 취소가 결정된다. 이런 부분은 다 선수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며 “(미세먼지에 따른 취소도) 선수들과 스태프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에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박인비 ‘준우승만 3번’ 불운 깨고 완벽 우승

LPGA KIA 클래식...2021 시즌 첫 한국인 선수 우승

‘골프 여제’ 박인비(33)가 올해 처음 출격하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완벽한 우승을 차지했다.

박인비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즈바드 아비아라 골프클럽(파72-6609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KIA 클래식(총상금 180만 달러)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3개, 보기 3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74타를 기록한 박인비는 공동 2위 에이미 울슨과 렉시 톰프슨(이상 미국·9언더파 279타)을 5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박인비는 1~4라운드 내내 단독 선두를 유지하며 우승에 이르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달성했

다. 우승 상금은 27만달러(약 3억550만원).

지난해 2월 ISPS 한다 호주여자오픈 이후 1년 1개월 만에 거둔 개인 통산 21번째 우승이다.

4승을 더하면 박세리가 보유한 한국인 LPGA 투어 최다승 기록인 25승과 타이틀 이루게 된다.

KIA 클래식에서는 2010·2016·2019년 3차례 준우승만 했다가 11번째 출전인 올해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다.

박인비는 지난해 12월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이후 3개월 만에 출전한 L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올 시즌 한국인 선수의 첫 우승이기도 하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박인비는 이번 우승으로 올해 도쿄올림픽 출전권도 예약 수순에 들어갔다.

도쿄올림픽에는 6월 말 세계랭킹 기준으로 한 나라에서 상위 2명씩 출전할 수 있다. 세계랭킹 15위 내에 2명 이상의 선수가 들어 있는 나라의 최대 4명이 나갈 수 있다. 박인비는 세계랭킹 4위로, 세계랭킹 1위 고진영(26), 2위 김세영(28)을 이어 3번째로 랭킹이 높아 안전권에 있다. 세계랭킹 8위 김효주(26)가 뒤를 잇고 있다.

한편 고진영은 이날최종합계 8언더파 280타로 4위를 차지, 직전 대회인 드라이브온 챔피언십에서 컷 탈락한 수모를 씻어냈다. 지난해 LPGA 투어에 뛰지 않았던 김효주는 약 1년 4개월 만에 출전한 대회에서 이민지(호주)와 함께 5위(최종합계 7언더파 281타)에 올랐다.

/연합수스



박인비